

## >> 인쇄단체 · 기관 뉴스

### 2012년 인쇄인 신년인사회 1월 4일 오후 5시 인쇄정보센터서 개최

인쇄인들의 화합과 발전을 다짐하는 2012년 인쇄인 신년인사회가 대한인쇄문화협회(회장 김남수), 대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연합회(회장 이충원), 대한인쇄기술협회(회장 김진배), 서울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이사장 남원호) 공동주최로 2012년 1월 4일 오후 5시에 서울시 중구 쌍림동 인쇄정보센터 7층 강당에서 개최된다. 참가비는 없으며 관련 문의는 대한인쇄문화협회 사무국(02-335-5881)으로 하면 된다.

#### ◆ 동 정

- ▶ 윤형두 대한출판문화협회 회장은 1월 5일 출판인 신년교례회를 연다.
- ▶ 이상문 한국제지공업연합회 회장은 1월 6일 제지업계 신년인사회를 연다.
- ▶ 신우철 한국스크린인쇄공업협회장은 구랍 10일 한국스크린인쇄공업협회 주관으로 송년의 밤 행사를 주최했다.
- ▶ 유성렬 후지제록스 프린터스 재무 및 총괄관리 상무는 구랍 12일 후지제록스 프린터스코리아의 신임 대표에 임명됐다.

#### ◆ 부 음

- ▶ 신성전산품 김기호 대표의 부친이 구랍 12일 별세했다.

#### ◆ 화 속

- ▶ 리우식 (주)경림코퍼레이션 대표이사의 딸 경주 양이 구랍 10일 컨벤션 디아방에서 화족을 밝혔다.
- ▶ 박금식 신명문화(주) 대표이사의 장남 건민 군이 지난해 11월 27일 신라호텔에서 화족을 밝혔다.
- ▶ 문기창 오성아베스 대표의 차남 조영 군이 구랍 3일 제이드하우스에서 화족을 밝혔다.
- ▶ 광명비즈니스 송진희 대표의 차녀 정연 양이 구랍 3일 아펠가모에서 화족을 밝혔다.
- ▶ 이창래 (주)상지피앤아이 대표이사의 딸 수연 양이 구랍 10일 건국대학교 동문회관에서 화족을 밝혔다.
- ▶ 동우문화(주) 이승재 대표이사의 장녀 지영 양이 구랍 16일 한국의 집에서 화족을 밝혔다.
- ▶ 동양문화인쇄사 박삼서 대표의 장남 찬웅 군이 구랍 24일 M팰리스웨딩홀에서 화족을 밝혔다.
- ▶ 삼영D.P 신양자 대표의 장남 치환 군이 1월 7일 AW컨벤션센터에서 화족을 밝힌다.

#### ▼ 인쇄연합회 이사회 개최

대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연합회(회장 이충원)는 지난해 11월 25일 인쇄정보센터 7층 강당에서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사회는 2011년 3/4분기말 재무제표보고, 유가증권 손실처분 결의(안) 등을 원안대로 통과시켰으며 아울러 내년에 치러질 회장 선출 선거와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를 남원호 서울인쇄조합 이사장, 이수만 광주·전남인쇄조합 이사장, 구자빈 대전·충남인쇄조합 이사장, 박희준 대구·경북인쇄조합 이사장, 이완표 경기인쇄조합 이사장 등 5인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또한 '인쇄가격산출가이드라인(안)'의 개선에 대한 논의와 직접생산확인제도의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한 토의시간을 가졌다. 연합회는 이날 논의된 주요 내용을 취합해 중소기업중앙회에 전달하기로 했다.

#### ▼ 인쇄수출진흥협의회, 송년 간담회



인쇄수출진흥협의회(회장 김남수)는 구랍 12일, 서울인쇄정보센터 7층 회의실에서 송년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남수 회장은 대한인쇄문화협회 주관으로 일본 동경에 협회에서 인쇄물수출개척단을 파견한 것을 소개하고, 2011년 한 해 동안의 인쇄물 수출동향에 대한 설명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남수 회장은 간담회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올 한해도 불철주야로 수고하신 여러 회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새해에는 더욱 사업이 건승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김남수 회장은 “인쇄물의 수출은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 분야인 만큼 해외시장의 정보에 대해 적극적으로 파악하려는 노력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전산정보부회, 정기총회 개최



서울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전산정보부회(간사장 김영길)은 구랍 7일 서교호텔 트러스트룸에서 2011년 전산정보부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대한인쇄문화협회 김남수 회장, 서울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남원호 이사장을 비롯한 내빈들과 부회원 등 6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김영길 간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올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다”고 노고를 치하하고 “지난 해 인쇄업이 중소기업적합업종에 1차로 선정되는 쾌거가 있었다”며 “우리를 힘들게 하는 수많은 난제가 있어도 지혜를 모으고, 회원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참여가 있다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총회는 경과보고 및 결산보고를 받고 이를 승인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 서울조합, 인쇄관련학과 학생 해외연수



서울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이사장 남원호)은 지난해 11월 16일부터 인쇄관련학과 재학생 20명을 초청, 2박3일간 일정으로 일본으로 해외연수를 실시했다. 이재복 기능인력양성위원을 단장으로 한 이번 해외연수는 서울공고 그래픽아트과 6명, 서울북공고 영상그래픽인쇄과 6명을 비롯, 신구대 그래픽아츠미디어과, 부경대 인쇄정보광학과, 중부대 인쇄미디어학과 1학년 학생들 각 2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학생해외연수단은 후지제록스의 고객가치창조센터, 예비나센터를 비롯, 도쿄 미술인쇄사 등을 둘러보는 등 인쇄에 대한 식견을 넓히는 시간을 가졌다고 전했다.

### ◆ 이전

- ▶ 한솔제지(대표 권교택)는 구랍 23일 본점 사무장을 서울시 중구 을지로 100 피인애비뉴 빌딩 B동 23,24층으로 이전했다. 전화와 팩스는 전과 같다. 대표전화 : 02-3287-7114
- ▶ 태성바인텍(대표이사 김재복)은 최근 본점 사업장의 소재지를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 1로 56 번지로 이전했다.

### 동국대 APP 경영인 대상 시상식



동국대학교 APP(Aesthetic Professional Program for CEO)총동문회(회장 이경삼)는 구랍 21일 서울 세종호텔 3층 세종홀에서 '동국대 APP 경영인 대상 시상식'을 가졌다.

동국대 APP 경영인 대상 수상자는 화장품산업부문 청담화장품 최권철 대표, 의료산업부문 이미지성형외과 이흥기 박사, 외식산업부문 태영식품 전경표 대표, 뷰티살롱부문 자르고헤어살롱 고연숙 원장이 수상하고, 금상 수상에는 에스테틱 유통부문에 하루리 한수한 대표, 코스메틱산업부문 미플러스 송시아 이사, 뷰티교육부문에 헤미인뷰티아카데미 배순희 대표가 각각 수상했다. 대상 수상자에게는 대상 상패와 순금 10돈종 메달이 수여됐다.

동국대학교 APP과정(주임교수 남궁영훈)은 국내 화장품, 뷰티업계 CEO를 비롯한 사회지도층과 각 부문별 전문가들이 교류하기 위한 교육의 장으로 올해까지 6기수, 3000여명이 수료했다.

### ▼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법 설명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는 구랍 14일 한국저작권위원회 교육원에서 개정 저작권법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인쇄 출판업계의외에도 일반인, 저작권신탁관리단체, 인터넷포털업체, 웹하드업체, 법조계 등 관련업계에서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한미 FTA 이행을 위한 저작권법은 2011년 11월 22일 국회를 통과하여 2011년 12월 2일 법률 제11110호로 공포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저작권법 시행령 및 시행 규칙도 법률과 함께 공포되었다. 한미 FTA 이행을 위한 저작권법은 한미 FTA가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된다. 다만 저작권접권 보호기간 연장은 2013년 8월 1일부터 시행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날 행사에서 개정 저작권법은 일시적 저장의 복제 확인, 저작권접권 보호기간의 연장, 공정이용 제도의 도입 등 필요한 관련규정을 현행 저작권법 체계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 제48회 무역의 날 행사

#### 고문당인쇄 · 글로벌프린트팩 등 수상

한국무역협회는 구랍 12일 코엑스 컨벤션홀에서 이명박 대통령, 무역업계, 정부와 유관기관 관계자 등 1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 48회 무역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대기업 153개, 중소기업 1,776개 등 1,929개사가 '수출의 탑'을 수상했으며 인쇄 분야에서는 고문당인쇄(대표 장선운)가 2천만불 탑을 수상했으며 글로벌프린트팩(대표 배성민)은 1백만불 탑을 수상했다. 제지, 잉크 관련업계에서는 전주페이퍼(대표 한인수) 3억불 탑, 동양잉크(대표 최대광)와 잉크테크(대표 정광춘), 광명잉크제조(대표 이남규)가 3천만 불 탑, 대한잉크(한진수·안희석)는 2천만불 탑을 수상했다. 일반 유공자에는 동양잉크의 김동철 차장과 김영찬 대리, 광명잉크제조의 이남익 부장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 ▼ 독서문화국제심포지엄 개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가 주최하고,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위원장 양성우)가 주관한 '독서의 해를 말한다' 독서문화국제심포지엄이 구랍 13일부터 14일까지 서울역사박물관 강당에서 출판·도서관 단체 및 관계자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번 독서문화국제심포지엄은 독서 문화 활성화를 위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개최된 행사로, 해외 독서의 해 관계자들의 발표와 국내 명사들의 독서 진흥 관련 강연 및 패널 토론 등으로 진행됐다.

13일 첫날에는 영국의 2008년 국민 독서의 해 전반을 직접 수행한 아너 월슨 플래처 알드리지 재단 대표를 비롯해 일본의 2010년 국민 독서의 해를 성공적으로 이끈 문자·활자문화추진기구 에이키 와타

나베 전무이사와 2012년 호주 국민 독서의 해 창립그룹의 마가렛 엘렌 의장이 내한해 각국의 독서 환경과 국민 독서의 해 주요 프로그램 및 의의에 대해 논의했다.

14일 둘째 날에는 조동성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의 '국가 경쟁력과 독서'라는 기조강연을 필두로 한윤옥 경이대 문헌정보학과 교수가 '생각의 나무'주제 발표를 했다. 여기서는 성인 독서율이 1995년 이래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우리나라 독서 문화의 현주소를 심도 있게 진단하는 한편, 이를 타개하기 위한 적극적 방안으로 독서의 해 지정 및 추진을 제안했다.

이어 독서계뿐만 아니라 언론사 논설위원과 학교도서관 담당교사, 기업체 독서 동아리 관계자, 출판사 대표 등 교육·문화계를 아우르는 패널들이 참여해 독서 진흥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 ▼ 고문당인쇄, 인쇄업계 유일 '신용스타기업' 선정



최근 (주) 고문당인쇄(대표이사 장선운)는 인쇄업계에서는 유일하게 신용보증기금이 선정하는 '신용스타기업'에 선정됐다. '신용스타기업'은 신용보증기금에서 2011년부터 5년간 미래기업가치가 양호하고 국제경쟁력을 갖춘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100개사를 직접 심사, 선정하여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1기 선정 사업에는 신용보증기금이 직접 서류심사와 현장평가, 심사위원회, 선정위원회 등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기업의 비전이 명확하고 CEO의 성장 의지, 지속성장 가능성, 목표 달성시기 대효과, 기술력과 수출경쟁력 등 성장잠재력을 갖춘 18개사가 최종 선정됐다.

고문당인쇄 장선운 대표이사는 "이번 신보스타기업 선정은 그동안 기술개발과 해외 진출 등에 전념해온 노력의 결실이며 이를 인정해준 신용보증기금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선정을 계기로 글로벌 인쇄기업으로 더욱 발전하여 한국 인쇄산업의 위상을 높이고, 나아가 세계속에 한국인쇄를 더욱 빛내도록 힘을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신보스타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앞으로 6년간 최저 보증율(0.5%) 혜택과 유동화 회사보증 우선 편입, 각종 경영 컨설팅지원 등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전폭적인 지원을 받게 된다.

## ▼ 신도리코, 글로벌 비전 연수 실시



신도리코(대표 우석형)는 구랍 14일 2011년 경영목표를 달성한 영업부문의 노고를 치하하고 글로벌 영업 비전 확대를 위해 국내 영업팀장 및 보직자 전원을 대상으로 중국 청도 '글로벌 비전' 연수를 진행했다.

이번 연수는 중국 생산법인과 현재 청도시에서 가동 중인 제1기, 2기 공장을 탐방하고 2012년 상반기에 완공을 앞둔 중국판매총괄법인과 중국 사육을 방문하는 일정으로 추진됐다. 이와 함께 중국 영업 인력과 본사 영업팀장들의 '1대 1 멘토&멘티 결연식'이 진행됐다. 1대 1 멘토&멘티는 한국의 영업팀장들이 내년부터 현지에서 '신도(SINDOH)' 브랜드를 걸고 영업을 펼 중국 직원들에게 이메일과 통신을 통해 조언과 상담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연수에 참가한 직원들은 "이번 중국방문을 통해 중국 현지 직원들과의 유대감을 돈독히 할 수 있었다"며 "중국시장의 도전을 발판으로 또 다른 세계시장으로의 무한한 도전기회가 주어질 것이라는 느낌을 받았다"고 소감을 전했다.

신도리코 홍보실 김성웅 이사는 "청도시는 중국 내에서 경제발전 중심구역으로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도시다. 신도리코는 2000년 초부터 중국시장의 가능성을 알고 준비해왔다. 내년에는 영업인력을 통해 중국 사무기기 업계에 자체브랜드인 '신도(SINDOH)'를 알리는 해가 될 것이다"라고 중국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 ▼ 성도GL/성도솔루션 김상래 대표이사 IGM 멘토링 특강



(주)성도GL/(주)성도솔루션(대표이사 김상래)은 지난해 11월 30일 IGM 세계경영연구원에서 특강을 진행했다. 이번 특강은 성도GL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 문화경영과 기업 경영환경 변화와 승계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되었으며, 후배 CEO 들에 대한 실질적인 경험전달과 토론의 시간으로 구성되었다.

(주)성도GL/(주)성도솔루션은 앞으로도 이런 기회를 통해 인쇄업계에 대한 인식과 이미지를 높이고,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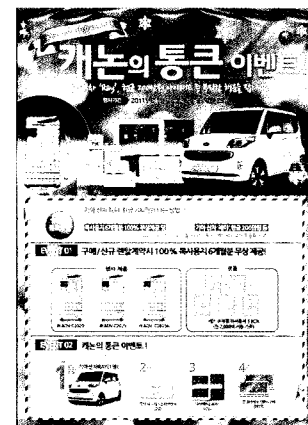
## ▼ 성도GL/성도솔루션 김상래 대표이사 서강대학교서 CEO 특강



(주)성도GL/(주)성도솔루션(대표이사 김상래)은 지난해 11월 29일 서강대학교 'CEO 특강' 초청을 받아 강연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이번 강연은 "그 어느 때보다 지금 더!! 성도GL 사례 연구"라는 제목으로 진행되었으며 미래의 추축이 될 학생들에게 인쇄산업을 알리고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주)성도GL/(주)성도솔루션은 앞으로도 미래의 핵심인재들에게 문화와 지식을 전달할 수 있는 많은 시간을 할애할 것이라고 전했다.

## ▼ 캐논코리아 비즈니스 솔루션 캐논의 통 큰 이벤트 실시



캐논코리아 비즈니스 솔루션(대표이사 김천주)은 지난 2011년 11월 28일부터 2012년 2월 29일까지 3달간 기아자동차 신차 '레이', 현금 200만 원, 아이패드 등 푸짐한 경품을 증정하는 '캐논의 통 큰 이벤트'를 실시한다.

이벤트 응모 방법은 행사 기간 동안 캐논의 컬러복합기 행사 제품을 구매 또는 렌탈하고, 구매정보를 등록된 고객 중 추첨을 통해 1등 기아자동차 신차 '레이' (1명), 2등 롯데 체크카드 200만원권(2명), 3등 아이패드2 WiFi(10명), 4등 롯데시네마 상품권 2매(50명) 등 경품을 증정한

다. 또한 행사 기간 중 행사 제품을 구매하고, 구매정보를 등록한 고객 모두에게 복사용지 6개월분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이번 행사 제품은 iR ADV C2020, iR ADV C2025, iR ADV C2825K 이며, 참여 방법은 캐논코리아 비즈니스 솔루션 홈페이지(www.canon-bs.co.kr)내 캐논의 등 큰 이벤트 배너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캐논코리아 비즈니스 솔루션 관계자는 “‘Smile CEO Event’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캐논의 등 큰 이벤트’를 통해 캐논의 품질력 높은 컬러복합기도 체험해 보고, 신형 자동차, 현금 지원, IT기기 등 푸짐한 경품도 받아볼 수 있는 마리 맛보는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며 “고해상도 풀 컬러 프린팅, 혁신적인 라인 표현력과 뛰어난 공간 활용성, 저전력 소비 등이 특징인 캐논코리아 비즈니스 솔루션의 컬러 디지털 복합기에 많은 관심을 가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 **삼원인쇄, 송년의 밤 행사**



삼원인쇄(주) (대표이사 원종철)는 구랍 3일 경기도 김포시에 위치한 김포웨딩홀 컨벤션홀에서 설비증설 축하 및 송년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이날 행사는 2011년 하반기에 새롭게 도입한 만로랜드 706TLV의 성공적인 가동을 축하하며, 또한 한해 동안 수고한 임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삼원인쇄는 고객들에게 최고의 품질과 생산성으로 날로 높아지는 고객들의 품질요구를 만족시키고자 도입을 결정했다.

송년의 밤 행사에는 삼원인쇄 임직원 90여명과 함께 인쇄업계 내, 외부이 참석하였으며 원종철 사장은 인사말을 통하여 “올해 전세계적인 경제위기 속에서도 양적, 질적 매출성장 이루어낼 수 있었던 것은 열심히 해준 모든 임직원들 덕분”이라며 “삼원이라는 회사를 사람들이 일하고 싶어하는 회사, 모두가 자기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회사가 될 수 있도록 모두 한마음 한 뜻으로 노력하며, 2012년 임진년이 삼원인쇄의 운증용변(雲蒸龍變)의 해가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만들어 가자”는 말로 인사말을 마쳤다.

이날 행사는 코미디언 황기순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개회사에 이어 내, 외빈 소개, 장기근속자 포상식, 만근자 포상식, 노래자랑, 경품추첨 등 다양한 이벤트가 진행됐다. 이날 대부분의 임직원들이 수상을 했으며 임직원들이 환한 웃음으로 함께 하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2011년 삼원인쇄 송년의 밤 행사를 마쳤다.

▼ **한국학술정보, HP 인디고w7200프레스 도입**



한국학술정보(대표 채종준)는 ‘HP 인디고 w7200 디지털 프레스’를 국내 최초로 도입, 다품종 대량 인쇄 시장을 선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학술정보는 매년 2600여종의 맞춤형 책을 출간하는 주문형 출판전문기업으로 지난 2007년부터 모두 6대의 HP 인디고 프레스를 도입해 포토북, 학회지 등을 출판하고 있

으며 2011년에 w7200, 7500 프레스를 각각 1대씩 추가 도입했다.

한국학술정보는 이번에 운전방식의 디지털인쇄기인 인디고 w7200 프레스를 도입함에 따라 생산성이 20%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HP 인디고 w7200 디지털 프레스’를 이용해 세계적인 학회나 해외 출판사와 적극적인 제휴를 맺을 계획이다. 이번에 도입을 결정한 한국학술정보 채종준 대표는 “이제 소비자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디지털 인쇄 기반의 출판시장이 열릴 것”이라며 “HP 인디고 w7200 디지털 프레스 도입을 통해 디지털 인쇄 시장을 선점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HP 이미징프린팅 사업부 그래픽 솔루션 비즈니스 부문을 총괄하고 있는 김병수 상무는 “HP 인디고 w7200 디지털 프레스는 최고의 생산성과 유연성을 갖춘 최상급 디지털 솔루션이며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인쇄 시장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주문형 인쇄 시장을 확장하는데 HP가 앞장 설 것이다”라고 말했다.

▼ **타오피스, 새 플랫폼 ‘타오피스 포트폴리오’ 발표**

타오피스는 타오피스 포트폴리오라는 새로운 플랫폼을 발표했다. 기존 2.5 버전에서 제공되었던 모델과 차별화된 타오피스포트폴리오는 솔로, 프로페셔널, 엔터프라이즈 세 가지 솔루션을 포함하고 있는 제품으로 고객이 원하는 사업 모델을 합리적으로 제안하고 있어 디지털 인쇄와 은염방식 장비를 통해 포토북을 제작하는 업체에게 보다 다양한 포토북 제작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회사측은 밝혔다.

새 플랫폼은 약 2년의 개발기간에 걸쳐 개발된 제품으로 기존 제품과 비교해 250개의 기능강화가 이뤄졌으며 25만 라인 이상의 새로운 코드로 구성되어 있어 결과적으로 50% 이상이 새로운 특성을 갖고 있다.

TAOPIX Port/olio  
Complete end-to-end software platform



타이픽스의 제임스 그레이(James Gray) CEO는 “그 동안 전문 포토북 제작 프로그램인 타이픽스가 소개된 이래 꾸준히 고객들의 제언과 요구 사항을 귀 기울여 왔으며 이번 출시된 타이픽스 포트폴리오는 이러한 고객들의 피드백을 기반으로 기존 버전과 비교해 월등히 향상된 기능과 성능을 제공하고 있다”며 “앞으로 이 제품을 통해 고객들은 보다 쉽고 효율적으로 포토북 제작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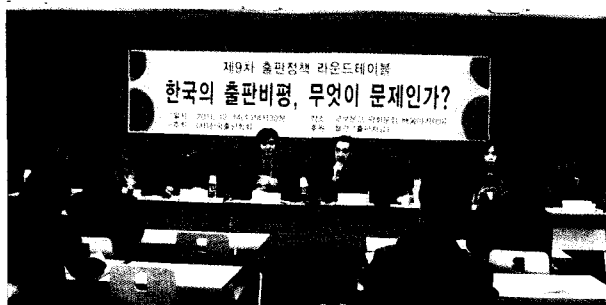
### ▼ 리팩, 불우이웃에 ‘사랑의 물품’ 전달



포장기계 제조업체인 리팩(대표 이일해)은 최근 저소득 가정 등 불우이웃을 돕는 사랑의 김장, 쌀 나눔 행사를 가졌다고 전했다. 이번 행사에서 리팩의 직원들은 직접 담근 김장김치 10kg 40박스와 20kg 쌀 20포를 인천시 서구 가좌3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물품 전달식을 가졌으며 기탁된 물품은 지역에 거주하는 저소득가정, 독거노인 및 소년소녀가장 60세대에 전달되었다.

리팩의 이일해 대표는 “연말을 맞아 외롭고 쓸쓸하게 지낼 수 있는 어려운 이웃을 돕게 되어 기쁘며 앞으로도 지역주민들과 함께하는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사랑의 물품을 지속적으로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 한국출판학회, 출판비평 주제로 라운드테이블 개최



한국출판학회(회장 남석순)는 구랍 14일 교보문고 광화문점내 '배움'에서 '한국의 출판비평, 무엇이 문제인가?'란 주제로 제9차 출판정책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 구분준 한겨레신문 문화부 기자의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김기태 세명대학교 교수(한국출판학회 부회

장)의 사회와 백원근 한국출판연구소 책임연구원, 선양규 휴머니스트 편집주간, 이현우(필명 로자) 인터넷 서평꾼, 장동석 출판평론가, 정은희 월간 출판저널 발행인, 표정훈 출판평론가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남석순 회장은 인사말에서 “출판학회의 출판정책 라운드테이블은 현 시점에서 가장 민감하게 대두되고 있는 출판계의 과제를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발제자와 토론자로 참석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그 해결책을 적극 모색하는 자리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우리나라 출판비평에 대한 문제점을 되짚어보고 그 발전방안에 대해 함께 모색해 봄으로써 한국출판의 미래를 더욱 알차게 만드는 뜻 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 마인회, 정기총회 개최



마포구 지역인쇄인들의 모임인 마인회(회장 이계환)는 구랍 15일 인쇄문화협회 5층 회의실에서 2011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계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철저한 자기관리로 자신의 건강을 지키고 현업에 종사하는 후배들에게도 귀감이 되기 바란다”며 “모이기에 힘쓰고 항상 인쇄업계를 생각하는 마음만큼은 현역 때와 똑같다”고 말했다. 이날 총회는 대한인쇄문화협회 김남수 회장의 초청으로 인쇄문화회관에서 개최되었으며 2012년 신임회장으로 민재기 인협 전 회장을 추대하는 한편, 기타 안건을 의결하고, 리뉴얼 된 인쇄문화회관을 돌아보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 ▼ 마음컴, 본사 확장 이전

마음커뮤니케이션(대표 박진만)은 구랍 13일 회사 직원과 거래처 및 업계 관계자 2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본사 및 공장 이전식을 가졌다. 회사 측은 그동안 분산되어 있던 본사와 공장을 확장하여 통합한 이번 이전으로 인해 보다 밀접한 고객서비스와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새롭게 이전한 본사의 주소는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219-8 세일로 빌딩 A동 2층이다. 마음커뮤니케이션은 인쇄종합기업으로 미스터 에이, 미스터 시디 등 다양한 브랜드를 내세운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 >> 제지뉴스

### ▼ 한국제지, '밀크' 페이스북 홍보 본격화



한국제지(대표 김창권)은 자사의 신규 브랜드 'milk'를 페이스북을 통해 적극 홍보하고 있다. 회사측에 따르면 milk 페이스북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삶의 패턴에 따라 차별화하여 한 주

의 시작을 위해 영감을 주는 콘텐츠로 월요일을 시작하여 '유명인사의 릴레이 인터뷰', '오늘의 밀크 한 장' 코너에서는 팬들로부터 접수된 함께 나누고 싶은 문구를 밀크지에 인쇄하거나 링크를 걸어 공유할 수 있게 했다. 또한 비즈니스, 자기계발, 문화, 여행, 취미 등 청년들이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야말로 자기계발에 노력하는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공유하려 하고 있다고 전했다.

회사측의 관계자는 "밀크지 홍보에 대한 일환으로 공유된 밀크지와 타브랜드 종이의 품질을 비교하는 기사도 많은 관심을 받았으며 샘플을 요청하는 고객과 실제로 주문을 하는 고객이 모두 증가했다"고 전했다.

한국제지의 milk 페이스북은 지난해 11월 오픈되었으며 올해 본격적인 활성화를 위해 밀크 캠페인을 기획하고 있다. 회사측은 소비자들과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매개로 한층 더 성장하여 누구나 '공감, 감동, 동감' 할 수 있는 브랜드로서 입지를 확고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 ▼ 한국제지, 2012 한글 일일 달력전 참가

한국제지(대표 김창권)는 오는 1월 24일까지 개최되는 '2012한글 일일 달력전'에 참가한다고 전했다.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사회 각계각층의 초대인사 66명이 참가하여 '한글'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며 덕담을 캘리그래피로 적어 나누는 행사이다. 한국제지는 한글일일달력전 도록 제작용지를 지급하고 포토용지 샘플을 참관객들에게 홍보할 계획이다.

### ▼ 무림, '희망 저금통' 전달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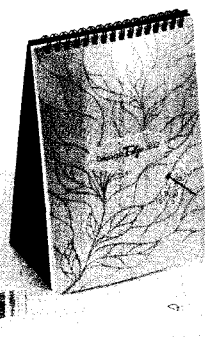
무림(대표 김인중)은 희망의 저금통을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하는 행사를 가졌다고 전했다. 이번 희망 저금통은 지난해 초 시무식 때 전 직원에게 선물한 것으로, 띠 저금통으로 한해의 소망을 담고 또한 각자의 온정으로 어려운 이웃에게 되돌려준다는 뜻이 담겨있어



그 의미가 크다고 회사측은 전했다.

무림은 이번 희망 저금통에 모은 모금액과 매월 급여에서 모은 자투리 금액을 합해 어려운 이웃에게 전하며 진정한 이웃사랑의 의미를 되새겼다고 전했다. 한편 무림은 매년 임직원들에게 띠별 저금통을 전달하는 이색적인 시무식을 열고 있다.

### ▼ 삼원특수지, 2012년 고급캘린더 배포



(주)삼원특수지(대표이사 이연옥)는 고객들에게 고급 캘린더를 배포하는 행사를 했다고 전했다. 삼원특수지는 2011년 한해동안 고객들에게 감사하면서 삼원특수지의 최고급 용지로 제작한 감사카드, 캘린더, 다이어리 등을 배포하는 행사를 가졌다. 삼원특수지가 제작한 2012년 캘린더는 지난 해 고객들에게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았던 17가지 주요제품

과 다양한 그래픽 이미지로 제작하여 단순한 캘린더에 그치지 않고 제품별 인쇄성을 참고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삼원특수지의 관계자는 이번 2012년 캘린더 증정을 시작으로 '고객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고객님의 마음으로 생각'하며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전하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 ▼ 삼원특수지, 2011서울디자인페스티벌 참가

(주)삼원특수지(대표이사 이연옥)는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11년 서울 디자인페스티벌에 참가했다고 전했다. 삼원특수지는 국민대학교와 건국대학교가 함께 작업한 '페이퍼 클러치 백' 전시로 종이와 패션, 텍스타일의 믹스를 통한 입체적인 종이의 변신을 선보였으며 전세계의 다양한 종이로 제작된 '페이퍼 어플리케이션' 제작물을 통해 세계 디자인 인쇄계의 최신 트렌드와 세련된 디자인의 상업인쇄물을 소개했다. 특히 이번 전시회에서는 다양한 종이를 직접 보고 만져볼 수 있도록 해 많은 디자이너들과 관람객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삼원특수지 관계자는 "종이라는 매체가 디자이너의 역량을 한 층 더 높여 줄 수 있는 경쟁력 있는 도구로 디자이너들에게 소개되었으며 많은 고객들과 소통할 수 있는 자리가 됐다"고 전했다.

## >> 해외뉴스

### ▼ 하이델베르크 패키징 데이에 통합패키지 생산 라인 선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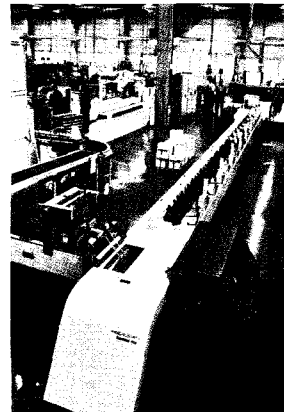


하이델베르크는 지난 10월 말 비슬로-발도프 공장의 프린트미디어 센터(PMC)에서 패키징 데이 이벤트를 개최했다. 이 이벤트에는 13개국에서 200여 고객과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2일간의 이벤트 기간 동안 참석자들은 프리프레스, 인쇄 및 후가공 공정이 완벽히 통합된 생산 라인을 통해 패키징 인쇄에서 제품과 활용 노하우를 직접 경험할 기회를 가졌다.

프린트미디어센터에는 스피드마스터 XL 75-LY-6+LYL Duo와 스피드마스터 XL 105-8+LYL 인쇄기를 중심으로 주변에 적절한 프리프레스와 후가공 기계가 생산 라인이 설치됐다. 후가공부문을 강화해 인쇄기뿐 아니라 프리프레스를 통해 통합된 생산 라인에 다이 커터와 접착기가 다양한 구성으로 포함됐다. 또한 이벤트기간동안 진행됐던 프리젠테이션은 ▲Dymatrix 106 다이 커터, Diana X 115 접착기 및 스피드마스터 XL 105와 XL 75 듀오 인쇄기에서 데모와 ▲하이델베르크 전문가와의 1대1 논의 ▲패키징데이의 하이라이트인 스피드마스터 SM 52 애니칼라 UV와 사피라 인쇄 재료를 이용한 패키징 단통 인쇄 데모 등 3개 부문으로 진행됐다.

하이델베르크의 관계자는 “인쇄인들은 UV 인쇄에서도 적은 손지와 전면에 균일한 색상과 같은 애니칼라의 장점을 이용할 수 있다. 이로써 플라스틱과 같은 비흡수성 용지에 인쇄가 가능하여 광고물, 홀더, 카드와 같은 특수한 작업이 가능하다. 평균 20매 정도 손지가 나와 환경을 보호하고 특히 값비싼 플라스틱 지질로 작업할 때 비용을 절약한다. 애니칼라와 UV 작업을 위해 개발된 사피라 인쇄재료가 사용되었다. 그 특별한 조합으로 사용자는 기계 성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으며 특수 작업에서도 고품질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패키징 데이에 참여한 스위스의 인쇄사인 CAG Cartonnagen AG의 로저 피터씨는 “요즘은 혁신적 기술과 기계를 활용해야만 치열해져가는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다. 그것이 하이델베르크 패키징 데이 이벤트에서 최신의 기술을 습득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 중 하나다. 또한 개인적으로 하이델베르크 전문가와 다른 인쇄 회사의 사람들과 이야기 하는 것도 특별한 장점이 된다. 또한 회사 밖에서 기계가 가동되는 것을 보는 것 또한 흥미로웠다”고 말했다.

### ▼ 하이델베르크 사, 유로바인드 프로 발표



하이델베르크는 최근 라이프치히에서 개최된 후가공 인포포에 서 스위스 회사인 Hunkeler AG의 디지털 제책 라인인 하이델베르크 무선철기 유로바인드 프로(Eurobind Pro)가 결합한 인라인 시스템을 발표했다. 이 인라인 시스템을 통해 디지털과 오프셋 인쇄물을 하나의 무선철기에서 전환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유로바인드 프로(Eurobind Pro)는 디지털과 오프셋 인쇄물 모두에서 동일한 고품질을 보장한다. 최소의 작업준비시간과 시간당 6천 사이클의 빠른 생산 속도로, 5만권에 이르는 대량의 작업뿐 아니라 소량 작업에서도 비용 효율적인 작업이 가능한 무선철기이다.

하이델베르크의 상업 후가공 책임자인 토마스 크리스케(Thomas Krischke)씨는 “이 무선철기는 인쇄사가 고객에 다양한 제품을 생산해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한다. 유로바인드 프로의 오픈 인터페이스와 정합기의 모듈식 디자인으로 다양한 종류의 창의적인 후가공 솔루션을 추가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유로바인드 프로와 Hunkeler의 인라인 제책 라인으로 일반 오프셋 시그니처와 디지털로 인쇄된 책 블록간에 버튼하나로 전환할 수 있다. 이 유연성은 무선철기의 활용 범위를 넓히고 가동률을 증가시켜 기계의 경제적 운용이 가능하다. 웹-프린트 디지털 작업은 인라인으로 접지되고 북 블록으로 모여져 인라인 프로세스로 무선철에 급지된다. 이는 수동으로 혹은 정합 기계를 사용해 하던 재단, 접지 및 정합 등의 기존 단계가 없어지고 중간 단계 제품을 저장해 놓을 필요도 없어진다. 하나의 롤로 이어지는 2개 이상의 작업이 가능해 디지털로 인쇄된 5천권의 작업도 비용 효과적으로 작업이 가능하다. 최소의 작업준비시간을 위한 뛰어난 자동화로 유로바인드 프로는 디지털 인쇄에 전형적인 다양한 극소량의 인쇄물을 처리하는데 이상적이다. 북 블록과 규격 설정 등과 같은 필수적 조정은 유로바인드 프로에서 완전 자동으로 완결된다. 또한 정합기의 서보 방식의 피더 모듈로 기계 가동 중 수평 설정이 가능하여 진행 중인 작업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급지부만 사용된다. 그 동안 다른 급지부는 다음 작업을 준비할 수 있다.

### ▼ 하이델, drupa 2012서 최신 솔루션 공개

하이델베르크는 오는 5월 3일부터 16일까지 뒤셀도르프에서 개최되는 drupa2012 (홀 1번)에서 광범위한 제품과 솔루션 포트폴리오를 선보인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Discover HE’배너 아래 최신



의 테크놀러지와 서비스의 광범위한 포트폴리오와 함께 인쇄사와 후가공 비즈니스 시장에 부응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전시한다. 하이델베르크의 CEO인 베른하르트 슈라이어씨는 “현 시장 환경에서 믿음과 신뢰성이 고객들에게 우선되고 있다. 순수 기술적 문제를 넘어서 일례로 장기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무엇인지, 그리고 미래에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와 전략이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지 등과 같은 고객의 물음에 혁신으로 답을 할 것이다. drupa 동안 하이델베르크는 광고와 패키징 인쇄 분야에서 그러한 질문에 대한 이상적 솔루션을 선보일 것이다”라고 말했다. 전시회 기간 동안 하이델베르크는 현재 시장에서 모든 중요한 시장의 변화를 아우르는 포트폴리오를 선보인다. 특히 린 생산 방법(lean production), 친환경 인쇄(green printing), 웹-투-프린트(web-to-print), 프린트-온-디맨드(print-on-demand), 코팅을 통한 차별화와 특수 효과, 패키징 인쇄의 미래와 최신의 노하우를 통한 경쟁력 확보 등에 집중한다.

린 생산 방법(lean production)은 효율성, 비용 최적화 및 속도가 광고 부분에서 기대된다. 인쇄물 생산에 있어 투자에 대한 수익은 인쇄 고객들이 최상의 가격에 최상의 제품을 찾는 문제와 관련된다. 이를 달성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전체 생산 라인을 공정 최적화와 가능한 가장 빠른 생산 프로세스를 사용하여 전 생산 워크플로우를 간소화하는 것이다. 이는 고생산성(HI Productivity) 솔루션으로 가능하다. 친환경 인쇄(green printing)부문에서는 하이델베르크가 제공하는 친환경 인쇄 기계와 프로세스를 다루며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는 최적의 친환경적 특성과 인쇄물을 제공한다. 웹-투-프린트(web-to-print)는 인쇄사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며 회사와 최종 고객에게 인쇄물 제작을 최적화하며 제작 공정을 자동화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아직도 사업체 부분에서는 막대한 잠재성이 있는데 다양한 사업체의 요구를 전폭적인 맞춤형 솔루션으로 충족할 수 있다. 하이델베르크는 HI Integration의 배너 아래 꼭 맞는 솔루션을 제공한다. 프린트-온-디맨드는 다양한 최신의 작업 테크닉을 포함한다. 기본적 원칙은 현재 데이터를 인쇄물로 바로 변형하는 것이다. 또한 동일한 내용 혹은 가변 데이터 인쇄를 매우 작은 양으로 하기도 한다. 인쇄된 이미지의 모습이 손상되지 않고 디지털과 오프셋을 한 인쇄물에 통합하는 하이브리드 제작도 있다. 고유 연성(HI Flexibility)이 방문객에게 이러한 트렌드를 자신의 사업체에 어떻게 도입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코팅을 통한 차별화와 특수 효과부문에서는 코팅, 엠보싱 및 콜드 포일과 같은 표면 마감 처리 기술은 인쇄물을 눈에 띄게 하고 그 효과나 내구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된다. 코팅과 특수 효과와 관련해 인쇄사는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도록 최적화된 생산 워크플로우를 갖추어 비용을 낮추고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며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최종 인쇄물이 뛰어난 것을 보장해야 한다. 하이델베르크는 HI Emotions 아래 비즈니스 기회들을 선보인다. 패키징 인쇄에서는 패

키징은 제품을 보호하고 이송과 보관을 돕는 단순한 역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담겨진 제품에 대한 직접적인 표현이다. 지식을 전달하고 판매 지점에서 구매 결정에 결정적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이에 코팅과 특수 효과가 제품을 두드러지게 하기 위해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하이델베르크는 HI End 아래 가능한 모든 옵션을 전시한다.

### ▼ 코닥, 중국 인쇄전시회서 성과

코닥은 All In Print China 2011에서 인쇄, 포장, 출판 전문가들을 위한 최신의 솔루션을 선보여 좋은 반응을 받았다고 밝혔다. 전시회 3일 동안 코닥은 잠재 고객들을 대상으로 인쇄산업을 주도하는 기술과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보여 주었다.

이번 All In Print 전시회는 “It’s time for you AND Kodak — 녹색의, 혁신적인, 디지털의, 그리고 신속한”을 테마로 열렸으며 코닥의 그래픽 커뮤니케이션 그룹과 컨슈머 디지털 이미지그룹의 존리 회장은 “코닥은 아시아 인쇄 시장에 대한 명료하고 확고한 공약을 가지고 있으며, 이 공약은 All In Print 2011에서 잘 설명되었다”며 “그 어떤 다른 업체도 코닥이 제공하는 심도 깊은 경험, 품질과 비교될 수 없으며, 코닥이 집중하는 것은 참가자들에게 어떻게 그들이 그들 스스로를 차별화하고 그들의 사업을 성장시킬 수 있을 지를 보여주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이번 전시회에서 코닥은 MBO PALAMIDES alpha 700 솔루션과 HUNKELER 를 투 커터 솔루션이 내재된 코닥 프로스퍼 1000프레스 등을 선보였으며 모노크롬 잉크젯 웹 프레스 솔루션은 자동화된 이미지 품질 관리 시스템을 선보였다. 또한 코닥의 부스를 방문한 고객들은 디지털 플레이트 제작 시스템의 수상작인 코닥 FLEXCEL NX 시스템을 포함한 포장 인쇄 솔루션을 볼 수 있었으며 코닥 프리너지 워크플로 시스템, 코닥 컬러플로 소프트웨어 등 새로운 버전의 워크플로 솔루션을 확인할 수 있었다. All In Print는 중국에서 열리는 가장 큰 인쇄 전시회로서 지난해 11월 14일에서 17일까지 상하이 뉴 인터네셔널 엑스포 센터에서 열렸다.

### ▼일본 돗판폼스, 코닥 PROSPER 5000XL 프레스 도입

일본 돗판폼스는 코닥 PROSPER 5000XL 프레스 3대를 도입했다. 돗판폼스는 기존 작업라인을 대체하기 위해 구입을 결정했으며, 일본 교육 출판 시장에서의 빠른 디지털 인쇄 필요를 검토하기 위해서 혁신적인 솔루션을 개발해 왔으며 코닥의 PROSPER 5000XL Press 가 이런 워크플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구매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돗판 폼스는 현재 제공하고 있는 인쇄 서비스의 범위를 확장하고 더 넓은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프로스퍼 5000XL 프레스를 사용할 예정이다. 돗판 폼스의 토시로 마사다 선임 관리디렉터는 “우리는 코닥 프로스퍼 5000XL 프레스가 많은 작

업량과 최고화질로 제품을 생산할 수 있음을 알고 있다”며“우리는 코닥 프로스퍼 5000XL 프레스로 기존보다 40퍼센트 이상의 작업량을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코닥의 아태지역 사장인 루이스 레벡은“코닥의 기술과 프로스퍼5000XL 프레스의 잠재성은 고객들이 새로운 시장에 도전하기 위해 제품을 사용해보거나 기존의 서비스와 비교해봤을 때 가장 명확히 설명될 것”이라며“우리는 우리의 고객이 진정으로 혁신적이고 영감을 주는 솔루션을 만들 수 있도록 협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코닥, 북 프린팅 포럼서 초고속 잉크젯 출판인쇄 발표

코닥은 잉크젯 기술 파트너십이라는 새로운 사업 부분을 발표했다. 코닥이 발표한 잉크젯 기술 파트너십은 파트너들이 코닥의 스트림 잉크젯 기술 이미징 서비스시스템과 잉크젯 기술에서의 코닥의 전문성, 시장기회에 즉각적인 반응을 위한 재료과학을 적절히 조율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잉크젯 기술 파트너십의 Ronen Cohen 제너럴 매니저는“이 사업은 코닥이 디지털 프링팅 업계에서 확장하려는 포트폴리오의 한 부분이며, 새 잉크젯 패키지와 인터페이스는 코닥의 이미징 기술을 어느 파트너와도 함께 일할 수 있는 솔루션을 쉽게 제공할 수 있다”며“코닥의 지원과 함께 한 기술의 모듈 방식이나 측정가능성은 새로운 것이나 개선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으로부터 빠르게 수익을 만들어내기 위한 새로운 솔루션이 빨리 수행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코헨 제너럴 매니저는 “우리는 이미징 시장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코닥은 인쇄를 그저 잉크를 종이 위에 바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변화를 보여줄 새롭고 혁신적인 솔루션을 시장에 내놓을 수 있게 해주는 마켓 리더들과 협력적인 관계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 ▼ SOS Print + Media Group

#### 코닥 프로스퍼1000프레스로 매출 신장

1년 전, 코닥의 프로스퍼 1000 프레스를 설치했던 SOS Print + Media Group은 이를 활용한 대규모 작업을 수주해 매출 신장을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Michael Schulz 디렉터는 호주에서 처음으로 코닥 기술을 적용한 선두의 위치에서 SOS Print + Media Group은“시대의 흐름과 혁신의 전선에 선두로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시장의 요구에 빠르게 반응할 수 있는 환경에서 아주 좋은 위치를 차지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우리는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빠르고 성능 좋은 잉크젯 솔루션이 필요했기 때문에 코닥 프로스퍼1000 프레스를 선택했으며, 이후 매월 수백만부에 달하는 인쇄물을 작업하고 있다”고 말했다.

## » 중소기업뉴스

### ▼ 중소기업 44%, 올해 신입 대신 경력직 뽑아

올해 채용을 진행한 중소기업 10곳 중 4곳에서는 신입사원 대신 경력사원을 채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람인(대표 이정근)이 2011년 채용을 진행한 중소기업 161개사를 대상으로‘신입 대신 경력사원을 채용한 경험에 대해 조사한 결과, 44.1%가’있다고 응답했다. 신입 대신에 경력직 채용을 진행한 이유로는 ‘당장 실무 처리가 가능한 인력이 필요해서’ (71.8%, 복수응답)를 첫 번째로 꼽았다. 이어‘경력자에 대한 만족도가 더 높아서’ (25.4%), ‘신입교육 비용, 시간 등 투자 절감 차원에서’ (23.9%), ‘신입공고를 내도 어차피 경력자가 많아서’ (15.5%), ‘신입 조기퇴사가 많아 손실이 커서’ (14.1%), ‘신입교육 인력 등 시스템을 갖추지 못해서’ (5.6%) 등의 순이었다.

경력직으로 대신 채용시 선호한 연차는 주로 ‘3년차’ (45.1%)와 ‘2년차’ (28.2%)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력직으로 채용을 대체한 것에 대한 만족 여부는 ‘만족스럽다’는 응답이 60.6%로, ‘불만족스럽다’ (4.2%)보다 무려 14배나 높았다. 전년 대비 경력직 채용 인원은‘증가했다’는 기업이 절반 이상인 53.5%였고, ‘변화 없다’는 29.6%, ‘감소했다’는 16.9%였다. 한편, 2012년 채용 시‘신입 대신 경력직 채용 의향이 있다’는 기업이 74.5%로 나타나, 경력직 채용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 ▼ 중소기업에 정책금융 79조 지원

2012년 세계경제 불안에 대비해 중소기업청이 79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자금을 마련했다. 중소기업 건강관리 시스템 등 위기관리 사전준비체계도 구축했다. 중소기업청은 구급 15일 서울 염곡동 코트라인베스트코리아 플라자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2년 중소기업청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우선 중기청은 안정적인 유동성 공급을 위해 중소기업에 정책금융 71조7000억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올해보다 4000억원이 줄어든 규모다. 대신 중소기업 경영안전망 강화를 위한 매출채권보험과 일석e조보험 인수규모를 6조원에서 6조8000억원으로 확대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대출 및 만기연장을 했던 208조원의 상환시기가 가까워지면서 중소기업이 유동성 문제를 겪지 않도록 조기 만기연장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경영기술 전문가와 컨설팅기관이 함께 중소기업들의 위기관리 진단도 실시한다. 2012년에는 금형, 주물 등 뿌리산업과 중소기업 적합업종 등 취약업종 5000개 업체를 대상으로 우선 실시하고 계속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창업활성화를 위해 1조원의 자금도 투입한다. 1300억원 규모의 청년전용 창업자금을 신설하고, 청년창업 특례보증도 6000억원 규모로 마련했다. 정부와 엔젤투자자가 벤처기업에 함께 투자하는 엔젤펀드도 1600억원 규모로 늘렸다. ☞